

# F1 경주장·R&D 특구 예산 살려내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차수…광주·전남 현안 사업비 확보 비상

국회가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 국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국고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관광위=우선 F1 경기장 건설을 위한 880억원의 국고 확보가 우선이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고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년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을 위한 국고 확보와 광주 국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확보도 중요하다.

특히,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CT 연구원)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반영과 함께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및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 확보도 긴요하다.

한편,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국고의 추가 확보도 시급하다.

◇지식경제위=광주 R&D 특구 예산을 지키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측에서 대구 R&D 특구와의 협력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삼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틀린 디젤자동차 부품 사업과 가전로봇 특화산업 조성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고 확보가 절실히 하다.

또한,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국산화 지원 사업과 나노 응용 상용화 플랫폼 촉진 사업을 위한 국고 확보도 지역 정치권이 행해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풍력에너지 연구센터 건립과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로의 유치에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우선 여수엑스포 관련 SOC 조기 완공을 위한 국고의 추가 확보가 당면한 숙제다. 또한, 여수엑스포의 명물이 될 아쿠아리움 조성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도 현안이다. 서남해안관광제로지에서 진입도로와 F1 경기장 진입로 건설은

위한 국고 확보도 행해야 한다.

여기에 진곡산업단지와 협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곡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분데~임곡 구간 지방도 건설을 위한 국고의 추가 확보도 시급하다.

◇교육과학위·농식품위=광주과학기술원의 학제융합연구동 조성을 위한 국고의 추가 반영과 전남대학교의 생명과학융합센터 신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 사업과 광주교대 미래교육 거점대학 사업의 국고 지원도 결실한 현안이다.

농식품위에서는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한 벼 매입금 특별 지원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등을 행해야 한다.

또한, 서남해안관광제로지 건설을 위한 간척지(2천226만평) 양도·양수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와! 이게 천일염이야?

12월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남지역 천일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2009 소금박람회'에 견학 나온 어린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소금을 만져 보고 있다. 이번 행

사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워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지방기업, 가장 시급한 현안은 SOC 확충 대안상의 설문…2위는 공장건립 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1개 지방 상의에서 지역별 현안 과제로 올린 46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바라는 내용이 17건(37.0%)으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이용 및 공장건립(16건), 조세 및 금융(6건), 인력운용(4건) 등 순이었다. 상의는 이 같은 지방 기업들의 요청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한 설의문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

토해양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설의문에는 지역 내 수송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광주~화순·나주간 '철도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울산신항만 개발예산 지원 등 '항구개발'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근 도로망 조기 준공, 송산지방산단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건설'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설의문을 통해 지역 경제는

노후화된 구미공단 1단지 리모델링, 광주 문화상품복합단지 조성,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신산업단지 개발 지원 등 지역 개발사업들을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와 금융부문에 대한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올해 끝나는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국방문의 해'가 끝나는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증액해줄 것, 산업단지 내 사업소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 등이 요구 사항으로 거론됐다.

제조 및 건설업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물류업에도 도입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의 관계자는 "지방의 산업기반 시설과 인력수급 등 경영여건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과제를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배경

##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이탈 막고 다문화·글로벌 시대 적극 대처

법무부가 12일 공개한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다문화·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에서 외국 국적자로서 권리 행不行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함으로써 한국 국적자의 감소를 막고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한국사회에 품으로 끌어들여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장치인셈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하면서 낳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그간 우리나라 단일국적주의에 입각, 일정 나이가 되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양자택일하도록 했고, 국적선택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자산도 모르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엄격한 국적법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동안 한국 국적 이탈자가 선착자보다 많게는 10배를 넘었다. 저출산 시대에 맞아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수국적 자격을 상실도록 했지만 정부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를 놓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여하는 규정은 외국인의 한국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이었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태하는데도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있었다.

개정안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검은여리 외국인'의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만 쳐우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은 유지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출입국시에도 외국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건강상 이유나 신체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 복수국적자나 여군에 자원입대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또 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수국적 자격을 상실도록 했지만 정부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를 놓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 탄소배출권 거래 경진대회 개막

광주과기센터서 28개 기관·기업 참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경진대회가 12일 개막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대형 발전사, 포스코, 여천NCC 등 28개 온실가스 다채널 업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부터 13일 까지 이를 동안 광주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전력거래소(KPX)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에서는 각 기관과 업체가 사이버상에서 보유하는 탄소배출권이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된다. 참여하는 기관과 업체는 한국남동발전,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여천NCC, 남해화학, 광주시청, 전남도청, 남구청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해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할 한국전력거래소

가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5개 발전사(전력 그룹사)를 대상으로 발전 부문 배출권 모의 거래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 8월부터는 배출권 모의거래 참여범위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금융 등 부문별 주요 업체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금까지 모의 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전부문에서는 석탄 발전량은 22% 가량 감소하고, 가스 발전량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201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kjnue.gnue.ac.kr/>) 신입생 모집

### ■ 모집전공

- **야간제** : 초등 도덕, 국어, 사회과,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실과·환경, 영어, 컴퓨터, 특수, 유아교육, 아동상담심리, 교육과정과수업, 다문화교육 전공 등 15개 전공
- **계절제** : 초등 도덕, 국어, 사회과,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환경, 컴퓨터, 교육과정과수업, 교육 행정·정책, 유아교육 전공 등 12개 전공

**■ 모집인원** : 262명(특별전형 - 파견교사 00명 포함)

**■ 원서접수기간** : 2009. 11. 23(월) ~ 12. 5(토)

**입학자격 전면 완화** :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한 (예정자 포함)자도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상담문의** : 062) 520-4082~3



[공시 RIS-001]

##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 2009년 기업지원사업과제 공모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신 에너지 소재·부품 기업지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판매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지원분야

- 가. 태양 에너지 분야(센, 전지 모듈, 컨버터, 추적장치 등)
  - 나. 수소 에너지 분야
  - 다. 기타 신 에너지 관련 분야
  - 라.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력 및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
- \* 관련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2. 지원사업

- 제품개발사업과제, 애로기술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분석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

### 3. 지원기간

2009년 11월 ~ 2010년 04월

### 4. 지원비

지원사업별로 평가 후 차등 지원 (사업종료 후 기술료 납부)

### 5. 신청기간

가. 1차 : 2009년 11월 09일 ~ 2009년 11월 18일 18:00 까지

나. 2차 : 기업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 6. 신청자격

광주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디스켓 포함), 사업지 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 견적서, 최근 3개년 재무 표제 등

### 8. 제출방법 및 조의처

- 가. 제출방법 : 사업단 홈페이지(<http://jnuris.chonnam.ac.kr>)
- kr) 공지사항의 지원신청서 서식에 의해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jnuris@chonnam.ac.kr) 또는 방문 신청

나. 접수처 :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산학협력공학관 306호 신에너지RIS사업단

다. 문의처 : 사업단 기업지원실  
(☎ 062-530-1992, 담당자 민병준)

### 9. 기타사항

지원업체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9년 11월 09일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장